

조연인가? 주연인가? - 참된 예배로 Change하라

로마서 12:1-2

- 1 그려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삶의 변화, 사역의 변화, 그리고 예배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종교적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바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종교적 예배가 형식이었다면, 참된 예배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년 집회를 인도한 이루다 목사님을 통해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그곳이 ‘거룩’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yes’라고 했으면 1장에서 끝났을 것을, 이리 저리 미루고 미루다 성경 통독을 하는 우리들에게 3장이나 더 읽도록 만들었고 말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거룩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만나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습니다.

“힘”이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헌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려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의 핵심은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그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에 충실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선행과 훈련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의 회복이 혹시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현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지루함을 호소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배가 지루하기 때문이며, 설교가 길다든가 대표기도 가 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배드리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질문 1. 우리는 예배의 주연인가? 조연인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주역이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극 대사를 외우다가 조는 주연 배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가 늦게 오거나, 공연을 하다 말고, 바쁘다고 먼저 가는 배우를 보셨습니까?

무언가 예배에서의 우리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되어가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분명히 책임이 있지요.

제가 오늘 설교자로 서 있지만, 설교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 주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단에 섭니다. 저에게 주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부담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창시절을 지난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갑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내가 가정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려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なり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제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제사를 수식하는 말로 “거룩한 산”이라 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래위기를 알아야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므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중보자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물 된 우리들에게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 직접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은 진한 동물의 피 냄새를 맡으면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가 없어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 제사가 결정됩니다.

아벨은 자기가 소유한 양들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란 많은 양들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청년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처음 직장에서 처음 받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런 결심을 한 자식이 너무 나 대견해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려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마음으로 선교도 합니다. 마음으로 애국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별된 우리의 몸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는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이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몸에는 동물의 피가 묻고, 역한 피 냄새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충, 졸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관객이나 조연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 되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어떤 피흘림과 어떤 헌신을 하고 있나요?

예배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배의 주역이 아니라, 예배의 관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갖추어진 예배를 관람한 사람들과,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형식인가? 내용인가?

예배를 정의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면이요, 다른 하나는 내용적인 면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예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란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요한복음 4장 23-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찰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끝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기준이란 “영”과 “진리”입니다. 형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혼란스러워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만나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나요?

왜 만나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가운을 입지 않으며, 강대상이 없나요?

왜 만나교회에서는 예배시간에 전자 음악을 사용하나요?

왜 만나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하나요?

왜 만나교회는 헌금시간에 바구니를 돌리다가 들어올 때 봉헌하는 방식으로 바꿨나요? 등등.

우리들이 가지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의구심들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형식적 정의를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있다.”

예배는 수없이 다른 모양과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유행한 “대-한민국” 박수를 함께 하도록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박수는 엇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간에는, 이 박수를 칠 수 있으면, 젖은이요 그렇지 않으면 늙은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를 치자고 했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이 다른 사람의 익숙함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이지요. 결국 어떤 형식이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어우러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에 대하여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 만나교회에서 토요 예배를 드리나요? 왜 만나교회에서는 5부 예배에 영상을 사용하나요?

왜 만나교회는 미디어교회를 시작했나요?

왜 만나교회는 예배마다 찬양팀이 다르고, 연주하는 방식이 다르고, 순서가 다른가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예배에서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에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봄을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가능성은 열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돋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형식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만나교회 사역 철학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또한 정의합니다.

“**‘만나교회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선교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일 듣던 사람의 사랑고백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고백과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고백을 더욱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서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음악’이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단이지 음악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리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취향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 하셔, 혹은 이것은 예배 음악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3. 영적 예배란?

우리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영적예배’에 대한 오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우리는 영적예배를 마치 미신적인 예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예배는 두려운 감정을 제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주일을 성수한다면 그 근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사업자 출장을 가게 되면 꼭 주일을 거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일견 체험적이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야합니다.

즉 예배의 미신적인 요소는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인가,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시의 잘못된 종교와 예배의 형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은 사물(things)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과 관련지어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니, 학기가 끝났는데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왜 일까요? 학기 초에 가져다주는 선물은 “뇌물”이지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 뇌물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고 싶으신 분이시지, 조건적인 뇌물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이 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구별된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진실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짓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머무르려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예배일까요?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교회 라는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

별하여 드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 간의 거룩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이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선교를 위하여 장소를 옮긴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나의 편의대로, 자의대로 장소가 옮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 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 말씀은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의 질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씨를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죽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남겨놓았다’고 변명하지만 거기에는 제사보다는 물질의 욕심이 있음을 말입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자리를 잡으면’이라는 말들이 다 동일합니다. 작은 것에서, 그리고 힘들 때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 유명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바빠지거나 세상의 명성을 얻게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물질로 인하여 손해를 당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구별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기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찾고 찾아서 드리는 예물이 흠 없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별하여 왔습니까?

시간의 구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 *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 *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 중에 하나님을 지갑에서 꺼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 *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자신의 남는 시간과 자신의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신다는 사실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드러날 때, 예배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나오셨습니까?

철저한 신뢰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한 순종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살 때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성을 쌓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과 재물을 쌓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 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와 기쁨의 주연들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